

종합

광주시의회 이어 광산구의회도 'SSM저지' 조례 제정

지자체 '영세상인 보호' 힘심는다

서구·북구의회도 추진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놓고 지역 상인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를 비롯한 각 자치구들이 입점 저지 조례를 잇따라 제정, 영세상인 보호에 나서고 있다.

13일 광주시의회와 일선 자치구의회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의회는 최근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을 제정해 영세 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

거를 마련했다. 광산구의회 김선미 의원(민노)이 발의한 광산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 조례에 명시된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서는 5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기업 유통사업자 역시 500㎡ 미만의 점포를 개설할 때에도 전통시장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하려면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사업개설 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SSM 입점 예정지인 우산시장이 지난 9일 인접시장으로 등록되고,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생법'과 광산구 조례가 제정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미 의원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와 SSM이 소규모 재래시장의 상권까지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보장하고 지

역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서구와 북구의회도 최근 관련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해 현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11일 본회의를 열어 재래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 500m 이내에는 매장 면적 500㎡ 이상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남약신도시 배우러 왔습니다" 박준영 도지사가 13일 무안군 삼향면 전남도청 23층 장보고 전민대에서 총남도청 이전사업 추진 및 신도시 건설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안희정 총남지사에게 남약신도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국가경쟁력' 부문 최고대상 수상

광주시가 '2010 국가경쟁력 대상' 공공기관 부문에서 '최고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경영평가원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최로 이날 열린 '2010 국가경쟁력 대상' 공공기관 부문에서 광주시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전체 평가대상 246개 기관 가운데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투자유치 성과, 산업경제 발전과 문화산업 육성, 참여와 소통의 자치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광산업의 비약적인 성장, 자동차 연간 50만대 생산, 전국 최대 가전집적지로 발전 등 3대 주력산업을 통한 첨단산업도시로의 도약, 올 수출 110억 달러 달성, 그린에너지-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경쟁력을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2010 국가경쟁력 대상'은 세계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에 발맞춰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우수기업과 기관 및 CEO를 선정 그 공을 치하하고 성과사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주는 상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골프장·공원·녹지면적 줄이고 기업·대학·연구소 용지 늘렸다

정부가 자족기능 강화를 내세워 추진했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활성화 방안이 구체화됐다. 하지만 지역 현실을 무시한 개발계획이어서 '혁신도시 경쟁력 강화'에는 턱없이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실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했다.

이번 안은 15개 공공기관의 최종 이점계획을 반영하는 한편, 국토부가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내놓은 혁신도시 발전 및 자족기능 강화 방안을 포함시킨 게 골자다.

혁신도시 전체 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전 공공기관이 17개에서 15개로 줄어들어 따라 공공기관 부지는 75만3420㎡에서 71만6570㎡로 3만6850㎡ 줄었고 공원·녹지 면적도 당초(25.4%)보다 0.4%(3만5008㎡) 줄어 최소 녹지율(25%)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변경됐다. 대신 민간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입주할 산

학원 클러스터 용지를 당초(36만 178㎡)보다 8만7603㎡ 확대한 44만8078㎡로 결정했다.

또 혁신도시 골프장 내 단독주택용지(페어웨이빌리지)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이 힘들 것을 우려, 당초보다 3분의 1 수준(9만 8739㎡ → 3만 2300㎡)으로 축소했다.

정부는 공원·녹지면적을 조정, 클러스터 용지에 포함시키면서 유상 공급면적을 확대, 용지 분양 가격을 낮춘 만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 변경안은 녹지 조정 비율이 0.4% 수준에 머무른 데다, 면적 조정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액(666억)도 전체 사업비(1조 4841억원)에 비하면 미미한 형편이어서 정부가 애초 밝혔던 '평균 분양가 14.3% 인하'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LH 관계자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개발계획 변경안의 경우 정부 기대만큼 분양가 인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전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해제 '붓물'

고흥 나로도·진도 팽목항 주변 석산 등

나로도 일대 해상국립공원이 해제되는 등 전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구역 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15일 국립공원계획변경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흥·완도·진도·신안군 등이 신청한 국립공원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환경부와 해당 시·군과의 협의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며, 이번 결정으로 나로도 일대를 비롯해 공원 해제안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흥군의 경우 최대 쟁점 사항인 해양수산·도립공원과 휴양림 일대(17.8km)를 새롭게 국립공원으로 편입하는

대신 동일·봉래·도화면 등 나로도도와 발포해수욕장 일대(11.0km)를 해제하는 문제를 환경부와 최종 합의, 22.60km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주센터가 들어서 있는 나로도 일대가 가옥 증·개축은 물론 관광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은 해상과 육지 등 142km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나로도 일대를 비롯해 해제되는 육지부 면적은 16.8km로 전체 41km의 40%가 넘는다. 수해 지역도 봉래, 도화, 동일면 등 3개면 30개 팔영산 도립공원과 휴양림 일대(17.8km)를 새롭게 국립공원으로 편입하는

장차를 보였던 팽목항 주변 석산 개발지(0.315km)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키로 합의, 신해양시대에 발맞춰 서남해안 관광 거점을 육성하는데 제한됐던 걸림돌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완도군은 청산도 남측 여서도를 국립공원으로 편입하고 신지면의 개발 예정지(육상 0.69km), 해상 일부(8.74km)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한 환경부와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29.76km(육상 15.5km·해상 14.26km)가 해제된다. 또 신안군은 우이도를 전면 해제하는 대신, 마을간 도로 개설과 자연보존지구에서 마을지구로 조정,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환경부와의 검토를 거쳐 3.34km의 구역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빛의만평

-김종두



정작 필요한 말 한마디가 없다

구제역 한우 서울 반입 비상

3마리는 이미 유통... 안전성 논란

경북 구제역 발생지역의 한우 9마리가 구제역 발생 이전에 서울로 반입됐고, 이 중에서 3마리가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구제역 확산 및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경북 봉화 지역에서 반출된 한우 9마리가 지난 4일 서울 가락동 시장 농협 축산물 공판장으로 반입돼 사육 뒤인 7일 도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서울로 도축한 하루 뒤인 8

일 구제역 감염을 막기 위해 봉화 지역에서 예방적 살처분한 한우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비롯됐다. 예방적 살처분한 봉화의 한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농식품부 등 방역당국은 봉화 지역에서 반출된 모든 소의 이력을 추적한 끝에 9마리의 한우가 서울로 반입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서울로 서울시에 더 이상의 유통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유동국씨



광주테크노파크 제5대 원장에 유동국(47) 광주정책연구원장이 선임됐다. 광주테크노파크는 13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원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가운데 유 원장을 차기 원장으로 선정하는 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 원장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오는 21일 취임해 3년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함평다이내스티 C.C 회원 모집

- ① 코스규모
 - 27층, Par 108(전장 : 9,635 미터)
- ② 모집인원
 - 50구좌 무기명카드 및 VIP회원 (개인 및 법인)
- ③ 모집기간
 - 2010년 12월16일 ~ 2011년 3월15일
- ④ 입회금
 - 개인(1구좌) : 1억7천5백만원
 - 법인(1구좌) : 3억5천만원
- ⑤ 구비서류
 - 공통 - 입회신청서 1부 (소정양식) 사진 3매
 - 개인 - 주민등록등본 1통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개인·법인 공히 지명인 주민등록등본 1통
- ⑥ 수납은행
 - 광주은행 727-127-005215
 - 예금주 :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내스티C.C

최고명문을 지향하는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내스티C.C 문의 061-320-7700/7777

성공한 남자의 손목에는 언제나 JAKAL-

'35년 전통' 수공예 명품시계



300점 한정 생산 판매 자동기계식 명품시계

오성코리아는 최근 35년 전통의 쥘러트 시계가 야심차게 만든 100% 수공예 시계 '자갈 팡크로드 빅워치'를 출시했다. 300점만 한정 생산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가격대비품질과 디자인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우선 디자인이 수백만원대의 해외 명품시계 못지않다. 도금부터 엘로우 골드까지 아닌 팡크로드로 처리해 세련미를 더했다. 미네랄 라운드 강화유리를 채용해 스크래치 걱정이 없으며 최고급 소가죽 밴드를 사용했다. 클래식한 아라비아 숫자 판과 버클과 밴드에 자갈 로고를 새겨 넣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또한 철저한 A/S도 장점이다.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일본 완제품 자동 무브먼트와 기계식 작동원리를 채용했다. 날짜와 요일표기는 물론

년·월·일 표기, 낮과 밤 표기 가능까지 채용해 활용성이 높다. 회사 관계자는 "300대만 한정 생산하는 제품으로 희소성이 높고 가격이 합리적 이면서 디자인과 기능이 뛰어난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며 "남자의 멋을 한층 돋보이게 제작 됐으면서 정장은 물론 캐주얼에도 잘 어울려 실용적"이라고 말했다. <MADE IN KOREA> 02-522-7667

부동산매각공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접 | 건물내 상가 영업중



- 시건번호 : 광주지법 2009타법 35086호(경매24개)
 - 매각대상 부동산
 -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52-16의 6필지 총대지면적 6,189㎡
 -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52-16, 752-45 위치상 건물 총면적 8,828㎡ (태우스파랜드 5층점지방물건 및 상가다수)
 - 최초법사가 (감정가) : 10,193,861,600원
 - 당회최저입찰가 (5차) : 3,651,224,000원
 - 입찰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30일 (목) 10 : 00
- 광주지방법원 경매법정
- ※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경주농협 채권관리팀(054-777-8130~4) 안강농협 채권관리팀(054-761-4485)
- 2010년 11월 29일
- 경주농협합동조합 안강농협합동조합

★ 사례금 100만원 ★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

(치매가 심하고, 반백 짧은 스포츠형 머리, 분홍색 환자복 착용(목 뒷부분에 연락처번호 있음), 맨발 또는 양말 차림, 왜소한 편, 베이시제 점퍼(추정), 말(대화)하기 좋아하심.)



- 성명 : 박연택(남/78세)
- 실종 일시 : 12월 9일 오후 8시 30분경 추정
- 실종 장소 : 광주 북구 생용동

신고자 : 010-3605-8400
요양원 : (062) 571-0129, 572-0129